경품게임기 검증·인증장치 전무

개·변조 단속 '헛바퀴'

사행성 성인 게임장이 전국을 뒤덮고 '도박 열풍'을 불러온 것은 경품 지급게임(AWP·amusement-with-prizes) 기계에 대한 검증·인증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경품지급게임의 설명서, 기계 외관 등 외관상 점검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을 뿐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심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부차적인 부분인 화면 그림은 영등위가 직접 심의하지만, 정작 사행성 여부와 직결되는 프로그램 기능 부분은 업체 측이 제공한 설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단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뒤 불법 개·변조를 통해 승률 조작, 당첨금 한도 인상, 매출 탈루 등을 방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바다이야기' 제작업체가 영등위 심사 통과 후 당첨금이 연속으로 배출돼 한 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딸 수 있는 '연타' 기능, 대박 예고 그림이 나오는 '예시' 기능 등을 불법 추가한 것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는 "영등위가 ▲프로그램 소스코드 ▲당첨확률 ▲하드웨어 등 기술자료도 제출받기는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실제 심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속에 나서는 경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박봉기 수사과장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행성 성인 게임기가 영등위 심사를 통과, 겉으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후 불법 개·변조에 대한 사행성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경찰이 직접 오락을 해보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불법 개·변조에 따른 성인용 게임의 도박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경품지급게임 기계에 인증칩을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도입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處暑…가을 재촉 최고 80㎜ 비

23일은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處暑·음력 7월13일). 함평군 나산면 사상마을의 한 촌부(村婦)가 해바라기 아래서 고추를 말리며, 가을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10~8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함평 나산면=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깜짝 소나기에도 더위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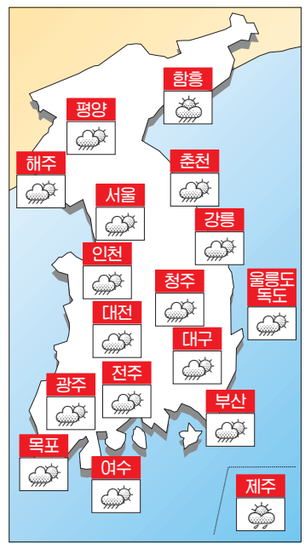
8월 23일 (음 7월 30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곳에 따라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비온뒤 갬, 번개	24~30℃
목 포	비온뒤 갬, 번개	25~31℃
여 수	비온뒤 갬, 번개	24~30℃
완 도	비온뒤 갬, 번개	24~29℃
구 례	비온뒤 갬, 번개	24~31℃
해 남	비온뒤 갬, 번개	24~29℃
장 흥	비온뒤 갬, 번개	23~30℃
고 흥	비온뒤 갬, 번개	24~30℃
순 천	비온뒤 갬, 번개	23~30℃
영 광	비온뒤 갬, 번개	24~32℃
진 도	비온뒤 갬, 번개	25~32℃
전 주	비온뒤 갬, 번개	24~31℃
남 원	비온뒤 갬, 번개	23~31℃
정 읍	비온뒤 갬, 번개	23~31℃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 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02:14 14:06 썰물 〈 07:29 19:27
여 수 밀물 〈 08:51 21:19 썰물 〈 02:54 14:53



▲해뜸 05:58 ▲해짐 19:12 ▲달뜸 05:06 ▲달짐 19:0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 씨						
최저/최고	24/30	23/31	23/31	23/31	22/30	23/29

광주 남구 '문화의 집' 잡음

완공 7개월 불구 수련시설 아닌 법당으로 사용

광주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운영자 선정과 수련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수련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이 '관음전' '오백나한전' 등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남구청의 특별교부세 집행방식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2002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을 받아 태황사(당시 태현사)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지난해 말 완공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 과정에서 통상 사업 주체와 계획 등이 확정된 뒤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야 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자 선정이나 입지조건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자를 '태황사'로 선정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교부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교부세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수련시설의 규모·운영 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고,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지만, 남구청은 미리 운영주체를 확정해 놓고 민간위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태황사가 지난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에 전통사찰 건립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건립 방향을 바꾸면서 운영자 선정 등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완공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전히 청소년지도사와 운영자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및 휴게실 ▲주차장 ▲진입도로 공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 시민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과정에서 "남구청이 4억5천만원 국비를 들여 건립한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 7개월이 넘도록 사찰 법당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황일봉 남구청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수능 시계' 나왔다

수능 교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수능전용 손목시계가 개발됐다. 22일 나온 이 디지털 시계는 스톱워치, 알람, 진동, 계산 기능 등을 모두 없애고 수능 교시별로 현재 시각과 남은 시간만 자동으로 표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애인 성폭행 더 있었다"

인권위, 광주 인화학교 새 이사진 구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 2000년~2004년 이 학교 교사·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와 보육교사 이모(35)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운영예산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시설에서 성범죄가 지속된 점 ▲성폭력 예방상담 및 신고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교육적·인권적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임원들을 해임하고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수형기자 jhlim@kwangju.co.kr

신안 4천여세대 전기공급 재개

정전 재산피해 53억

한전 전남지사 신안지점은 21일 오후 8시를 기해 정전사고로 24시간 이상 전기가 끊겼던 자은면 일대 등 4천여세대에 전기공급을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크레인에 의해 잘린 송·배전선 6개 중 1개를 임시 복구하고, 비상용 발전기 등을 동원했다.

한전 관계자는 "하지만 완전복구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 전력소모가 많은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사고로 2천590만마리의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 하는 등 5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피해보상 받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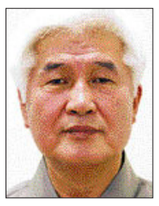
박준영지사 지시

박준영 전남지사는 22일 신안지역 정전사태로 인한 수산물 피해와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어민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피해 지역인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와 이공리 새우양식장을 방문하고 "해저방식의 송전선로 구축과 비상선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도는 피해 조사 실시후 가칭 '단전에 따른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가해자, 한전측과 피해보상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

5·18기념재단 새 이사장 이홍길 前 전남대교수



'(사)5·18기념재단' 이사회는 22일 '2006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 8대 이사장으로 이홍길(65·사진) 전 전남대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이사장은 함평 출신으로 목포중·광주고·전남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0년 광주고 재학시절 '광주 4월 혁명'을 주도했다. 5·18 당시에는 도청 수습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신군부에 구속되기도 했다.

/임수형기자 jhlim@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23일) 최춘식 233-8833
- 법무사회 법률상담(23일) 김은자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